

제주도 전통 와가(瓦家)와 초가(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 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Household Workspace Between Traditional Waga and Choga in Jeju

- Focused on the Housing Authorized as Historical Preservation Units -

제주관광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이 정 림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봉 애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Cheju Tourism College

Instructor : Lee, Jeong-Lim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Bong-Ae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조사결과 및 논의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basic information in comparison of workspace of traditional housing between traditional Waga and Choga in Jeju.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ix Waga (roofing tile system), authorized as Jeju Folklore Materials and five Choga (roofing thatch system), authorized as National Major Folklore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ousehold workspaces in Waga were separated by three places: Jungji, Chatbang, and Gopang. In Choga, it was separated by two places, Jungji and Gopang.
2. As a number of Jungji, Waga had one, which meant that two or more generations shared the kitchen facilities. Choga, it had one or two Jungji, which meant that each generation used different kitchen facilities.

3. Functional space of division Waga was specific. So, meal preparation was done in Jungji, and dining was done in Chatpang. However, in Choga, both meal preparation and dining were done in Jungji.
4. The sequence of space, in the JungjiGeriBulDong style, which Jungji was located in the detached building, showed that the circulation directs: Gopang→Sangbang→Chatbang→Madang→Jungji. AnGeriJungji style, which Jungji was located in the main building, showed that the circulation directs: Gopang→Sangbang(→Chatbang)→Jungji.
5. In the size ratio of household workspace to whole size of the house, Waga occupied 30%, and Choga occupied 21%.

주제어(Key Words): 와가(Waga, roofing tile system), 초가(Choga, roofing thatch system), 가사노동공간 (household workspace)

I. 서론

제주도는 온화한 지역이면서도 바람이 많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북부지방의 집중형주거와 남부지방의 분산형주거가 혼합된 절충형주거의 특성을 나타낸다. 절충형주거는 인접한 지역에서 문화의 접촉변용(acculturation)¹⁾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와 기후조건에 의해 중간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는 섬지방으로서의 특수한 기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강영환, 1993).

제주도 주거는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모거리(옆채)가 있어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분산형 주거이면서도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로 이루어져, 각 살림채의 평면형식은 중앙 상방(마루)을 기준으로 이중배치가 이루어지는 겹집의 집중형주거 형태를 보인다. 강행생(1985)의 연구에서는 척박한 생활환경, 머슴의 부재, 유교 양반문화의 회박내지 결여, 경제적 빈곤이 안·밖거리형²⁾ 주거문화를 만들었다고 보았으며, 송성대(1990)의 연구에서는 제주도 주거를 한국의 도서지방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서 다동직분립형(多棟直分立形)이라 하여 두 채의 건물이 마주보게 배치되는 형식으로 분석하여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김영식(1996)의 연구에서는 제주 민가의 구성과 배치, 인접성 분석, 간수(間數)의 분석 등으로 각 공간의 면적과 공간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공간의 특성이나 기능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현대 가사노동공간의 행위별 공간분화(池邊陽, 1955)·(이경희 외, 1994)·(梁瀾度子, 1995)는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제주도 전통가옥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초가에만 한정시켜 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가미되면서도 한반도의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조형형식을 띄고 있는 와가의 경우도 제주도 지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와가와 초가의 가사노동공간을 연구범위로 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제주도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 문화지리학에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문화권이 인접하는 지역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두 문화의 성질을 혼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문화의 접촉변용이라한다.

2) 안·밖거리형은 원래 건물의 배치 형태를 일컫는 말이나, 주로 제주도의 초가에서 안채와 바깥채 각각에 부엌, 마루, 방이 설치되어, 자녀가 결혼을 하였을 때 한 울타리내이지만 다른 건물에서 개별생활과 취사를 하는 것을 가르키기도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은 1978년 <제주도민속자료>로 지정된 6개의 와가와 1979년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5개의 초가이다. 이 가옥들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제주도 전통가옥의 대표성을 설명할 수 있고,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가능하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와가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과 조천읍³⁾은 조선시대 연륙(連陸)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초가가 위치한 표선면 성읍리⁴⁾는 현정(縣廳)소재지로서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문화재보호정책을 받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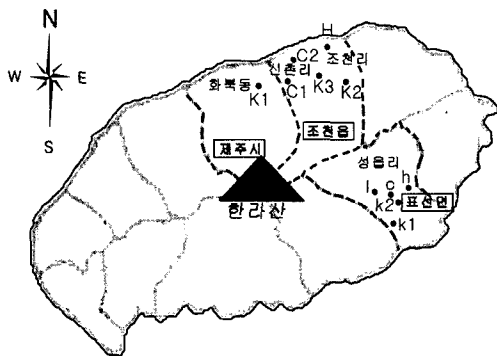
연구내용은 주택의 건립당시 가사노동공간에 관해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1) 와가와 초가의 평면 특성
- 2) 거주자의 직업, 가족구성, 생활양식
- 3) 가사노동공간인 정지·챗방·고팡의 위치, 기능, 방위, 동선, 면적비율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여 와가와 초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방법을 채택하



<그림 1> 조사가옥의 위치

였다. 문헌연구는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 보고서」와 「제주도민속자료」에서 과거의 평면과 배치형식을 분석하여 형태적인 관찰을 하였고, 현장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⁵⁾의 방법으로 실측조사와 인터뷰기법을 사용하여 건축 당시 주생활 행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2000년 10월 8일~11월 15일에 실시하였고, 보충조사가 2001년 8월과 9월에 이루어졌다.

3. 용어정리

건물	안거리	: 안채 또는 본채
	밖거리	: 바깥채로 본채와 마주 앉은 형
	모거리	: 바깥채로서 본채와 직각으로 놓인형
	정지거리	: 부엌건물
	이문거리	: 좌우에 주거시설이나 축사가 있는 여러간으로 된 대문간
실(室)	구들	: 방
	큰구들	: 큰방
	작은구들	: 작은방
	상방	: 건물의 중심에 있는 마루방
	정지	: 부엌
	챗방	: 상방과 정지 사이에 있는 마루방
고팡	: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부속사	외막	: 외양간, 농기구 보관소
	헛간	: 허드레간, 창고

※ 「제주도민속자료」의 표기를 준용함

- 3) 제주의 와가는 품관인들이 모여 살았던 제주시 삼도동과 연륙포구인 화북동과 조천읍에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조천읍은 조선시대 관(館)을 두었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진사 등이 생활하였고,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인 연북정(戀北亭)이라는 누각이 1820년(순조20년)에 마지막으로 보수되어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을만큼 조천관을 중심으로 마을형성이 이루어져 더욱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4) 성읍리는 남제주군 표선면에 있는 산간마을이나, 1423년 최초의 현청소재지였던 성산읍(城山邑) 고성(古城)에 외적 침입이 잦아 옮겨진 것이 조선시대 약 5세기정 의현(旌義縣)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지정 민속마을 188호(1984년)로 되어있다.
- 5) 문화기술학(Ethnography)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관찰 결과를 메모, 스케치하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평면의 특성

1) 와가

〈표 1〉과 같이 와가는 최고 1820년대에서부터 1910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약 100년 정도 된 가옥들이다. 한 가옥당 건물 수는 안거리·밖거리·모거리·정지거리·이문거리 등 4동 이상이며, 각 건물은 대부분 세 칸 이상이다. 〈표 2〉와 같이 가옥주 혹은 근친 조상이 관직에 종사하였거나, 상업 또는 대규모 농업으로 경제적 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옥 규모가 비교적 크다. C1가옥의 경우 개인 방앗간이 있을 정도로 대농(大農)의 경향을 보였으며, K1·C2가옥은 포목상을 하여 상업에 의한 경제적 부가 축적된 경우이었다. K1·C1가옥에서 주인이 특별한 직업없이 한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사진 1〉 제주도 와가(H가옥)



〈사진 2〉 제주도 초가(k1가옥)

도 경제적 여건이 배경이 된 것이다. 〈사진 1〉과 같이 건물 배치 형식은 와가이면서도 전형적인 제주도의 안·밖거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초가

초가는 1829년에서부터 19세기 말엽 사이에 건축되어 와가와 마찬가지로 100년 이상 되었고, 초가 재료의 특성상 지붕 보수가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살림채가 1~2동으로 와가에 비해 규모는 작다. 〈표 2〉와 같이 가옥의 주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k1가옥의 경우 개인 방앗간이 있었고 마소 150두 이상을 사육하여 목축업을 겸한 대농이었다. l·k2가옥은 살림채가 안거리 한 동뿐이며, 대문도 없다. c·k1·k2가옥은 모거리 위치에 있는 건물이 살림채가 아닌 부속건물이었다. 〈사진 2〉는 초가 k1가옥으로 안·밖거리 배치 형식이다.

2.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1) 와가

가옥의 건립당시 거주인에는 〈표 2〉와 같이 고용인이 반드시 있었고, 이들은 모거리나 이문거리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H가옥의 경우는 함께 기거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돕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었다. 안거리에는 대부분 부모와 미혼 자녀가 기거하였으나, H가옥처럼 미혼 자녀가 모거리에 분산되어 기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C2가옥의 경우는 안거리에 조모가 여자 고용인과 함께 기거하였으며, 밖거리에는 장남내외와 그 자녀들이 기거하였다. 제주도 전통가옥에서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는 안·밖거리 개별경제단위(제주도민속자료, 1987)가 일반적이거나, 조사대상 와가의 건립당시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는 안·밖거리로 생

기록하고,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참여관찰과 개방형 질문형태가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질적 연구이므로 소수의 현장을 택하여 심도 있게 대상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표 1> 평면의 특성

가옥명*	지정번호	소재지	건축시기	건물규모 및 공간구성		
와	K1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1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1640번지	1913년	안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초가 모거리 : 이문거리와 같은 채 이문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초가 이문 : 단간 와가 기타 : 2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챗방, 고팡 구들2개, 상방3개, 고팡 구들, 쇠막(이문간 별도로 있음) -(출입문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쇠막
	K2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3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473-1번지	1900년대	안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모거리 : 3간 초가 이문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정지거리 : 3간 와가 기타 : 2간 초가,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2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고팡 ×(건축당시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음) 작은구들, 쇠막2 작은구들, 상방, 정지 ①작은구들, 상방 ②헛간
	K3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4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523번지	1850년대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3간 초가 모거리 : 2간 초가 이문거리 : 단간 와가 정지거리 : 2간 초가 기타 :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건축당시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음) 작은구들2 -(출입문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작은구들, 상방, 정지 헛간
	H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5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	1910년대	안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모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와가 이문거리 : 단간 와가 기타 : 2간 초가,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2, 상방, 정지, 챗방, 고팡 구들3, 상방2 구들, 정지, 고팡2 -(출입문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헛간
	C1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6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462번지	1822년대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전면5간, 측면2간 초가 이문거리 : 밖거리와 같은 채 정지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기타 : 2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작은구들4, 상방, 고팡, 쇠막 작은구들, 정지, 챗방, 헛간 헛간
	C2가옥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4-7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303번지	미상 (乙丑年으로만 기록됨)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와가 밖거리 : 전면4간초가 모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이문거리 : 밖거리와 같은 채 정지거리 : 2간 초가 기타 :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작은구들, 고팡, 쇠막 작은구들4, 상방, 챗방 작은구들, 정지, 챗방 헛간
	초	c가옥	국가중요 민속자료 제68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리 872번지	1901년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밖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초가 모거리 : 2간 초가 이문거리 : 전면2간, 측면1간 초가 기타 : 2간 초가
k1가옥		국가중요 민속자료 제69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리 809번지	1829년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밖거리 : 전면4간, 측면2간 초가 모거리 : 4간 초가 이문거리 : 3간 초가	작은구들, 상방, 정지, 고팡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헛간 헛간
h가옥		국가중요 민속자료 제70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리 887번지	19세기 말엽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밖거리 : 1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고팡 헛간
h가옥		국가중요 민속자료 제71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리 928번지	19세기 중엽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밖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이문거리 : 3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고팡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헛간 헛간
k2가옥		국가중요 민속자료 제72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리 862번지	1879년	안거리 : 전면3간, 측면2간 초가 모거리 : 2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고팡 헛간

*문화재 지정 당시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여 와가는 대문자 영문약자, 초가는 소문자 영문약자로 표시함

** 이문거리는 대문옆에 부속실이 달려있는 경우이나, 단간이면서 대문만 있는 경우도 이문거리로 간주함

* 1간, 2간 등은 벽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 2〉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가옥명	가장	근친조상의 직업	동거인					생활양식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이문거리	정지거리		
와가	K1가옥	장남	조부:포목상, 농업 부:도의원, 한학, 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이문거리와 같은 채	고용인2명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K2가옥	장남	조부:평창·제주군수 부:한약상, 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	남자고용인 3명	여자고용인 3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K3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농업	부모, 미혼자녀	×	임차인	—	여자고용인 1명 남자고용인 1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H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조천면장, 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5남의 장인이 1년간 한의원 일을 함	미혼자녀	—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C1가옥	장남	조부:농업, 한학 부:한학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남자고용인 1명	정지거리와 같은 채	밖거리와 같은 채	여자고용인 1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C2가옥	장남	조부:포목상, 농업 부:농업	모, 여자 고용인 2명	장남 내외, 남자고용인 1명	××	밖거리와 같은 채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초가	c가옥	장남	조부:농업, 목축업 부:농업, 면장	부모, 미혼자녀, 고용인 1명	미혼자녀	— (부속공간)	—	××	부모-자녀세대 분가
	k1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농업	부모, 미혼자녀	임차인	— (부속공간)	—	××	부모-자녀세대 분가, 임차인세대 취사분리
	l가옥	모	조부:농업 부:농업	모	— (부속공간)	××	××	××	모단독세대
가	h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농업	부모, 미혼자녀	미혼자녀, 고용인 1명	××	—	××	부모-자녀세대 분가, 고용인 취사분리
	k2가옥	삼남	조부:농업 부:농업	부모, 미혼자녀	××	— (부속공간)	××	××	부모-자녀세대 분가

— 건물은 있으나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건축당시는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앤 경우
 ×× 건축당시부터 없는 경우 * 남자고용인 1명: 농장에서 거주, 여자고용인 1명: 비정기적 출퇴근

활공간은 분리되면서 공동취사 및 공동경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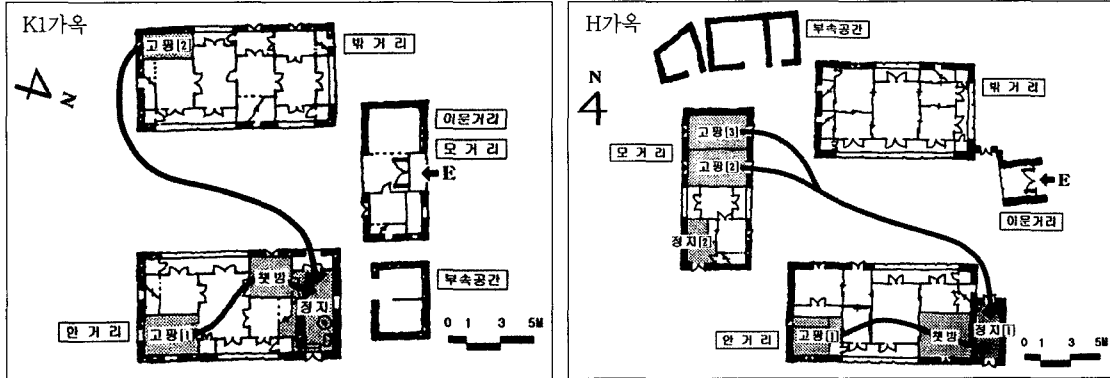
2) 초가

고용인은 c가옥과 h가옥에 있었고 c가옥에서는 안거리 정지 옆 작은구들을 사용하며 공동취사를 하였고, h가옥에서는 밖거리에 기거하면서 밖거리에 있는 정지에서 취사를 별도로 하였다. k1가옥의 밖거리는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초가에서는 미혼자녀만 안거리와 밖거리에 분산되어 기거하고, k1가옥과 h가옥처럼 밖거리에 취사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녀세대는 동네에 분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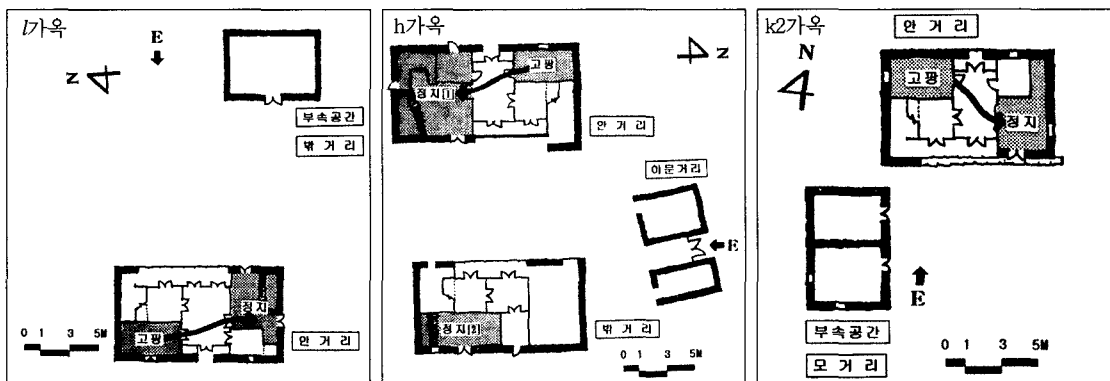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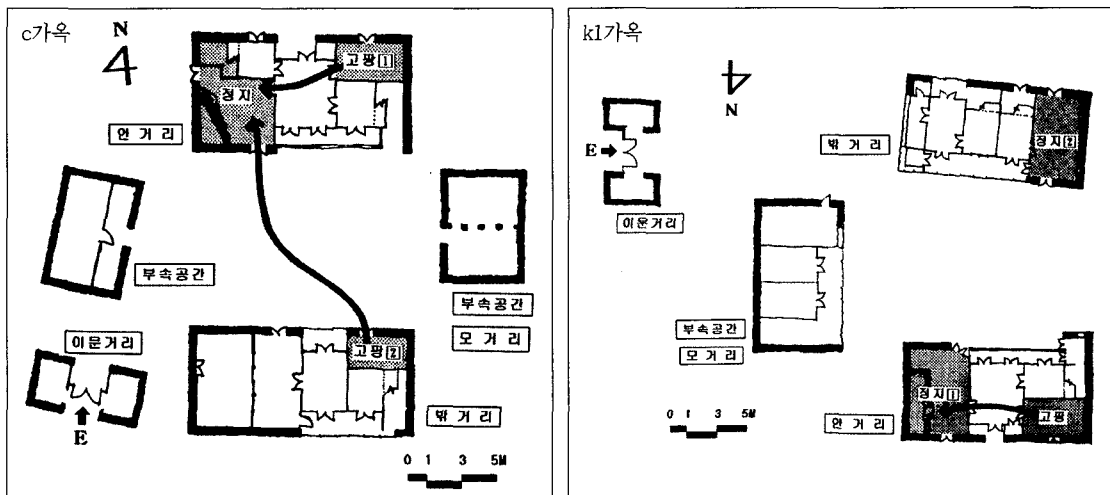
생활과 취사를 비롯한 개별 경제단위를 취하였다. l가옥의 경우도 자녀가 모두 결혼으로 분가하여 집주인이 혼자 기거하는 경우이었다.

3. 가사노동공간 분석

조사대상 가옥은 정지 위치에 따라 안거리에 정지가 위치하는 <안거리 정지형>과 정지거리라는 독립건물에 정지가 위치하는 <정지거리 별동형>으로 분류되었다. 와가에서 안거리 정지형은 K1·H가옥에서 나타났고, 정지거리 별동형은 K2·K3·C1·C2가옥이다. 초가는 모두 안거리 정지형이었고, 제



<그림 2> 안거리 정지형 와가의 평면도



<그림 3> 안거리 정지형 초가의 평면도

〈표 3〉 안거리 정지형의 기사노동공간

가옥명		정 지	챗 방	고 팡	
와	K1가옥	위 치*	안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좌측 전면	1. 안거리 우측 후면 2. 뽕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북서	북서	1. 안거리 고팡-남동 2. 뽕거리 고팡-남서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챗방 식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손님)→구들(남자주인)		
		면적비율	21.52%(정지 9.48%, 챗방 3.71%, 고팡 8.33%)		
가	H가옥	위 치	1. 안거리 좌측 전면 2. 모거리 좌측 후면	안거리 좌측 후면	1. 안거리 우측 후면 2. 모거리 우측 전면 3. 모거리 우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집안 대사시 보조정지 역할	곡물 저장
		방 위	1. 안거리 정지-북동 2. 모거리 정지-남서	남동	1. 안거리 고팡-남서 2. 뽕거리 고팡-북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뒷단간)→(상방)→(챗방)→정지↔챗방 식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여름 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면적비율	24.81%(정지 6.80%, 챗방 5.28%, 고팡 12.73%)		
초	c가옥	위 치	안거리 좌측 전면	—	1. 안거리 우측 후면 2. 뽕거리 좌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	곡물 저장
		방 위	남서	—	1. 안거리 고팡-북동 2. 뽕거리 고팡-북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정지 식사: 정지(여자, 자녀)→상방(남자, 자녀)		
		면적비율	11.82%(정지 6.61%, 고팡 5.21%)		
가	k1가옥	위 치	1. 안거리 우측 전면 2. 뽕거리 우측 전면	—	안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	곡물 저장
		방 위	1. 안거리 정지-남동 2. 뽕거리 정지-북서	—	북서
		동 선	조리: 고팡→(상방)→정지 식사: 정지(여자, 자녀)→상방(남자, 자녀) ※ 뽕거리에서는 공간별 동선없이 정지에서 모두 이루어짐		
		면적비율	24.13%(정지 21.01%, 고팡 3.13%)		
가	l가옥	위 치	안거리 좌측 전면	—	안거리 우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	곡물 저장
		방 위	남동	—	북서
		동 선	조리: 고팡→(상방)→정지 식사: 정지		
		면적비율	26.13%(정지 17.25%, 고팡 8.88%)		
가	h가옥	위 치	1. 안거리 좌측 전면 2. 뽕거리 우측 후면	—	안거리 우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	곡물 저장
		방 위	1. 남동 2. 남동	—	북서
		동 선	조리: 고팡→(상방)→정지 식사: 정지(여자, 자녀)→상방(남자, 자녀) ※ 뽕거리에서는 공간별 동선없이 정지에서 모두 이루어짐		
		면적비율	17.84%(정지 12.33%, 고팡 5.51%)		
가	k2가옥	위 치	안거리 우측 전면	—	안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	곡물 저장
		방 위	남동	—	북서
		동 선	조리: 고팡→(상방)→정지 식사: 정지(여자, 자녀)→상방(남자, 자녀)		
		면적비율	24.42%(정지 15.12%, 고팡 9.30%)		

* 건물앞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임

※ 바다 마감은 와가와 초가에서 모두, 정지는 흙바닥이었으며, 챗방과 고팡은 마루로 되어 있었음

주도 동부지역에서 정지거리 별동형이 나타나기도 한다(송병언, 1998).

1) 안거리 정지형

(1) 정지·챗방·고팡의 위치

① 정지

안거리 정지형은 조리과 식사가 동일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와가의 정지 위치는 K1가옥은 안거리 좌측 전면에 1개가 있고, H가옥은 안거리 좌측과 모거리 좌측 후면에 1개씩 있다. H가옥의 안거리 정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모거리 정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예비 정지로서만 존재하였다.

초가의 정지 위치는, c·l가옥은 안거리 좌측 전면에 있고 k2가옥은 안거리 우측 전면에 위치해 있다. k1가옥은 안거리 우측 전면과 밖거리 우측 전면에 1개씩 있으며, h가옥은 안거리 좌측 전면과 밖거리 우측 후면에 1개씩 있다. h가옥의 밖거리 정지는 고용인이 사용하는 정지였으며, k1가옥의 밖거리 정지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정지로 독립적인 취사를 하였다.

② 챗방

와가의 챗방 위치는 K1가옥은 안거리 좌측 전면에 있고, H가옥은 조사대상가옥 중 유일하게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정지와 인접해 있어서 상방에서 정지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했다. 비교적 최근의 초가에서 건물 후면에 챗방이 나타나기도 하나(김영식, 1996), 조사대상인 초가에서는 챗방이 없었다.

③ 고팡

고팡은 정지 건너편에 상방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며, 와가 K1가옥은 안거리 우측 큰구들 후면과 밖거리 좌측 구들 후면에 1개씩 있다. H가옥은 안거리 우측 큰구들 후면에 1개, 모거리 우측 전면에 2개가 있다. 초가의 고팡 위치는 모두 안거리 구들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c가옥만 밖거리에 고팡이 1개 더 있고, 전면에 위치해 있다.

(2) 각 공간의 기능

와가의 정지에서는 음식 조리 등 주로 식생활과

관계된 가사노동이 이루어졌다. 챗방은 주로 여자 어른과 자녀들의 식사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기일제사나 대사(大事)시에는 보조정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자 어른이나 손님의 식사행위는 상방이나 구들에서 이루어졌다. 고팡은 현대의 창고의 기능과 유사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초가의 정지에서는 음식 조리과 식사가 이루어졌고, 격식을 갖춘 경우에만 상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다. 동절기에도 구들에서 식사하는 예는 드물었고, 화롯불을 상방에 피워 식사하거나, 오히려 정지의 화덕 옆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와가에 비해 공간의 기능분화 수준이 낮았음을 말해준다.

(3) 각 공간의 방위

와가인 K1가옥은 고팡이 남동과 남서로 되어있고, H가옥은 챗방이 남동으로 되어 있어 가장 좋은 방위를 나타냈다.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안거리와 마당을 중심으로 정지와 챗방은 전면에 배치하고, 고팡은 후면으로 배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각 공간과 집터의 방위는 풍수설과 제주의 무속신앙이 결합되어 집주인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정해졌다(김석윤, 1996). 제주도의 무속신 중에 오방토신(五方土神)을 섬기는 것도 그 예라 볼 수 있다.

초가에서도 각 공간의 방위 설정은 와가의 기준과 같으나, 특히 고팡이 모든 가옥에서 북쪽에 면해 있으므로 기후에 대처하는 데는 보다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동선 관계

와가의 취사행위와 관련된 동선은 <표 3>과 같이 고팡에서 상방과 챗방을 거쳐 정지로 이어지며, 챗방과 정지는 상호 보완적인 이동이 빈번했다. 음식이 지어지면 챗방에서 남자 어른들의 상을 먼저 차리고, 여름에는 주로 상방까지, 봄·가을·겨울에는

6) 제주도 전통주택의 가신에는 정지신인 조왕신, 고팡의 쌀독을 지켜주는 안칠성 등이 있는데, 그 중 오방토신은 집터를 각 방위별로 지켜주는 신이다.

큰구들까지 상을 옮겼으므로, 저장공간(고팡)에서, 조리공간(정지)을 거쳐, 식사공간(챗방)으로 연결되는 동선관계는 좋지 못하였다. 바닥 마감은, 정지는 흙바닥이고 챗방과 고팡은 마루로 되어 있다.

초가의 동선은 고팡에서 상방을 거쳐 정지로 이어지며, 챗방이 없으므로 와가에 비해 동선은 짧았다. 상차리기와 식사 역시 대부분 정지에서 이루어졌다. 취사나 식사를 위한 공간별 동선관계는 초가와 와가가 유사하나 와가에는 챗방이 있어서 동선이 길었다고 볼 수 있다. 바닥 마감은 와가와 같다.

(5) 면적 비율

와가에서 건물의 전체면적 중 정지·챗방·고팡이 점유하는 비율은 K1가옥 21%, H가옥 25%로 평

균 23%를 나타냈다. 정지의 평균비율은 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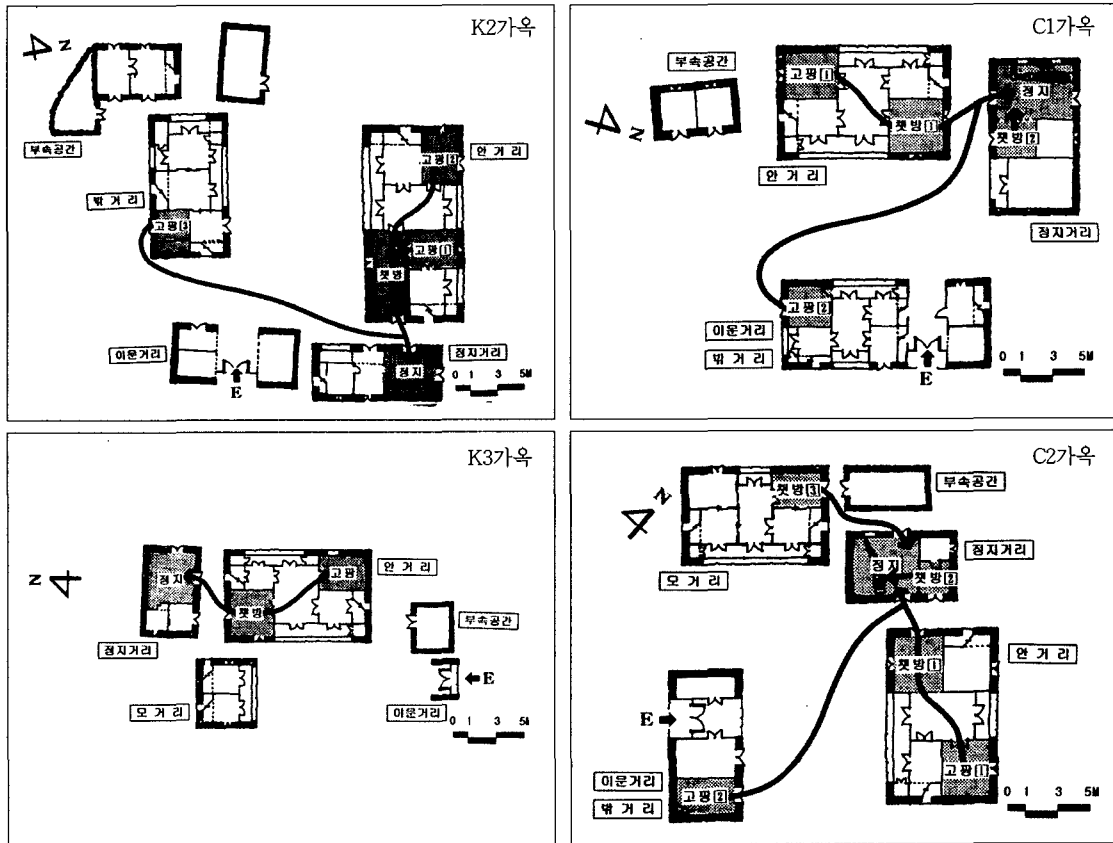
초가에서 건물의 전체면적 중 정지·고팡이 점유하는 비율은 c가옥 12%, k1가옥 24%, l가옥 26%, h가옥 18%, k2가옥 24%로 평균 21%이며, 와가에 비해서는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2) 정지거리 변동형

(1) 정지·챗방·고팡의 위치

① 정지

정지거리 변동형은 와가에서만 나타나며 조리와 식사가 별개의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정지의 위치는 모두 전면에 1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K3가옥은 정지거리 우측면에 있고, K2·C1·



<그림 4> 정지거리 변동형 와가의 평면도

<표 4> 정지거리 별동형의 가사노동공간(외가)

가옥명	정 지	챗 방	고 팡	
K2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전면 2. 안거리 좌측 후면 3. 밖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방 위	북서	남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상방(남자)→구들(남자)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상방		
	면적비율	24.28%(정지 5.46%, 챗방 7.44%, 고팡11.37%) / 30.53%*		
K3가옥	위 치	정지거리 우측 전면	안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방 위	북동	북서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상방(남자어른)→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상방		
	면적비율	32.52%(정지 13.23%, 챗방 10.53%, 고팡8.77%) / 39.54%*		
C1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전면 정지거리 중앙 전면 2. 밖거리 우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방 위	남서	북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챗방		
	면적비율	31.41%(정지 9.85%, 챗방 10.91%, 고팡10.65%) / 44.29%*		
C2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1. 안거리 좌측 전면 2. 정지거리 우측 전면 3. 모거리 우측 후면 2. 밖거리 좌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방 위	북서	북서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챗방		
	면적비율	33.80%(정지 9.04%, 챗방 12.91%, 고팡11.86%) / 35.49%*		

* 정지거리를 가사노동공간으로 모두 포함시킨 비율

※ 초가에는 정지거리 별동형이 없음

C2가옥은 좌측면에 있어서 안거리 챗방과의 연결을 고려한 배치로 볼 수 있다.

② 챗방

챗방은 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챗방의 위치는 모두 안거리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C1가옥은 정지거리 중앙에 챗방이 하나 더 있어서 2개이고, C2가옥에는 정지거리, 모거리에 하나씩 더 있어서 3개이며, 정지거리 챗방에서는 주로 고용인들이 식사를 하였다. K2·K3가옥의 정지거리에는 챗방에 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상방이 있고 챗방과 동일한 마감으로 되어, 보조정지의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고팡

고팡은 안거리 정지형처럼 주로 상방 건너편에 위치하고, K3가옥 1개, C1·C2가옥 2개, K2가옥에 3개가 있다. 고팡은 곡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초가에 비해 고용인을 포함한 거주인도 많고, 경제단위가 큰 와가에서 그 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고의 성격이 강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들 옆에 있었던 것은 과거의 생활상이 생업을 위한 가사와 작업 및 저장용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며, 도난 방지를 위해 특별히 취침시 가장 통제하기 쉬운 구들 옆에 붙여 놓은 것이다(제주의 민속 IV, 1996). 또한 제주도의 온난다습한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각 공간의 기능·방위·동선 관계

각 공간의 기능 및 방위는 안거리 정지형 와가인 K1·H가옥의 내용과 같다.

동선관계는 <표 4>와 같이 정지거리 별동형인 경우 정지거리 앞 마당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동선이 안거리 정지형보다 더 길었으나, 고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생활공간과 노동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3) 면적 비율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정지·챗방·고팡이 점유하는 비율은 K2가옥 24%, K3가옥 33%, C1가옥 31%,

C2가옥 34%로 평균 31%를 나타냈고, 정지거리를 가사노동공간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 37%로 안거리 정지형 와가보다 14%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초가에서 나타나는 점유율 23%(제주건축 II, 1992)보다 높은 것이고, 조사대상인 초가의 가사노동공간이 점유하는 비율 2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안거리 정지형 와가와 정지거리 별동형 와가의 가사노동공간 평균 점유율 30%를 초가의 가사노동공간 점유율 21%와 비교하면 9% 높은 비율로서,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가사노동공간의 면적도 증가하였고, 가사노동의 기능분화는 초가에 비해 더욱 뚜렷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와 같이 K2·C1·C2가옥에서 챗방이 정지보다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초가, 와가의 정지 평균 점유율 11%는 현대 부영의 점유율 8~10%(강순주·김상희, 1997)보다 조금 높으나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 면적도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와가는 안채에 정지가 있는 안거리 정지형과, 정지 전용건물이 있는 정지거리 별동형의 두가지로 나타났고, 초가는 안거리 정지형만 나타났다. (2) 가사노동공간은, 와가에서는 조리공간인 정지, 식사공간인 챗방, 저장공간인 고팡의 세 곳으로 나타났고, 초가에서는 정지와 고팡만 있고 챗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정지 수는, 와가는 1개로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에 공동취사가 이루어졌으며, 초가는 1~2개로 기혼자녀세대는 이웃에 분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밖거리에 정지가 있는 두 개의 초가에서 안·밖거리 개별취사를 한 경우는 고용인이나 임차인이 기거하는 경우이었다. 고팡 수는, 와가는 1~3개이고, 초가는 1~2개로 와가의 고팡수가 초가보다 많았다. (4) 공간의 기능분화는 와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정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챗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가는 정지에서 조

리와 식사행위가 이루어져 와가에 비해 낮은 분화 수준을 나타냈다. (5) 공간별 동선관계는 와가와 초가의 차이는 없고, 정지거리 별동형은 고팡→상방→챗방→마당→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다. 안거리 정지형은, 와가는 고팡→상방→챗방→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고, 초가는 고팡→상방→정지로서, 정지거리 별동형 와가의 동선이 가장 길었다. (6) 가사노동공간의 면적 비율은, 와가는 전체 건물면적 중 평균 30%를 나타냈고, 초가는 21%로 와가보다 9%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와가에서 가사노동의 공간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근대적 의미의 기능분화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비교적 큰 규모의 현대 주택에서 식당과 부엌공간의 분리와도 일치한다. 또한 초가에서 기혼 자녀세대가 이웃에 분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최근 주거공간의 세대간 분리 혹은 기능별 분리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제주도 전통가옥과 현대가옥의 접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토속건축이면서도 현대사회에 적합한 주거공간과 가사노동공간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순주, 김상희(1997). 현대주거학. 교문사.
- 강영환(1993).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강행생(1985).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식(1996).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집(1983).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공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병언(1998). 생활문화로 본 제주민가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성대(1990).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윤정숙, 홍형욱(1994). 주거학개설. 문운당.
- 이민섭(1963). 한국 주거 형태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김봉애(2001).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와가의 가사노동공간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12(3).
- 이희봉 역(1988).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 제주도건축사회(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건축, 2.
-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 제주도지편집위원회(1996). 제주의 민속IV. 제주도.
- 조성기(1984). 한국 남부 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추진위원회(1999). 제주의 건축. 상지문화.